



2월 4주차 |

주간 인도네시아

시장 동향 및 이슈





주간 이머징 증시 동향

구분	주가지수	2.19	2.12	전주대비(%)	전년말대비(%)	1년 최저치	1년 최고치
베트남	VN	1,173.50	1,114.93	↑ 5.25	↑ 6.31	659.21 '20/03/24	1,194.20 '21/01/15
인니	자카르타종합	6,231.93	6,222.52	↑ 0.15	↑ 4.23	3,937.63 '20/03/24	6,435.21 '21/01/13
인도	SENSEX	50,889.76	51,544.30	↓ -1.27	↑ 6.57	25,981.24 '20/03/23	52,154.13 '21/02/15
중국	상해종합	3,696.17	3,655.09	↑ 1.12	↑ 6.42	2,660.17 '20/03/23	3,696.17 '21/02/19
	심천종합	2,468.66	2,460.54	↑ 0.33	↑ 5.98	1,631.88 '20/03/23	2,468.66 '21/02/19
홍콩	H	12,106.77	11,880.49	↑ 1.90	↑ 12.74	8,559.64 '20/03/19	12,228.63 '21/02/17
	항셩	30,644.73	30,173.57	↑ 1.56	↑ 12.54	21,696.13 '20/03/23	31,084.94 '21/02/17
한국	KOSPI	3,107.62	3,100.58	↑ 0.23	↑ 8.15	1,457.64 '20/03/19	3,208.99 '21/01/25



주간 이머징 국채 금리(10Y) 동향

구분	2.19	2.12	전주대비(bp)	전년말대비(bp)	1년 최저치	1년 최고치
베트남	2.27	2.31	↓ -4.80	↓ -31.40	2.15 '20/03/09	3.65 '20/04/01
인도네시아	6.55	6.22	↑ 33.40	↑ 66.60	5.89 '20/12/30	8.38 '20/03/24
인도	6.14	5.99	↑ 14.50	↑ 27.00	5.75 '20/05/28	6.50 '20/04/13
중국	3.27	3.24	↑ 2.30	↑ 12.00	2.48 '20/04/08	3.36 '20/11/19
한국	1.88	1.83	↑ 4.70	↑ 15.50	1.26 '20/03/09	1.88 '21/02/19



주간 이머징 환율 동향

구분	2.19	2.12	전주대비(%)	전년말대비(%)	1년 최저치	1년 최고치
달러-동 (VND)	23,015.00	22,996.00	↑ 0.08	↓ -0.36	22,970.00 '21/02/08	23,637.00 '20/03/30
달러-루피아 (IDR)	14,065.00	13,973.00	↑ 0.66	↑ 0.11	13,695.00 '20/02/19	16,575.00 '20/03/23
달러-루피 (INR)	72.65	72.76	↓ -0.14	↓ -0.57	71.56 '20/02/27	76.87 '20/04/16
달러-위안 (CNY)	6.46	6.46	↓ -0.01	↓ -1.06	6.43 '21/01/29	7.17 '20/05/27
달러-원 (KRW)	1,105.82	1,102.97	↑ 0.26	↑ 1.78	1,081.81 '20/12/04	1,285.73 '20/03/19



인도네시아 경제 및 금융시장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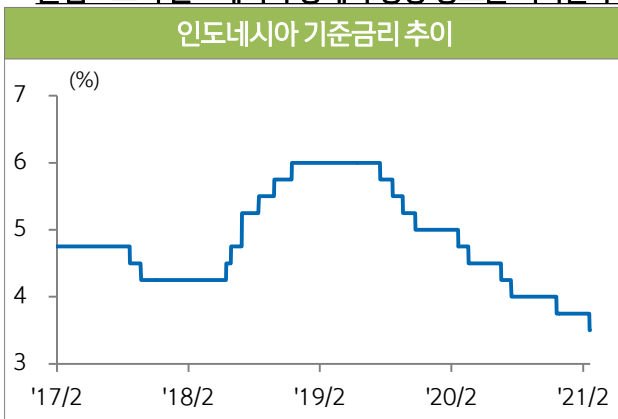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기준금리 25bp 추가 인하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2월 통화정책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하여 3.5%로 결정하였음. 이는 사상 최저 수준까지 기준 하락한 것으로 비는 실물 경제의 투자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은행의 대출 관련 조항들을 다음과 같이 완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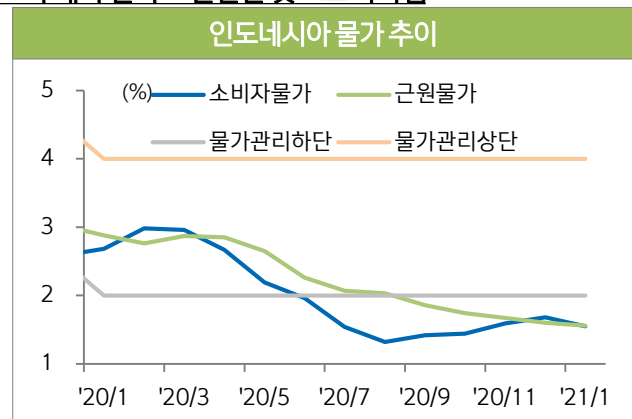
① 신규 자동차 구매를 위한 차량 대출에 대해서 3월부터 연말까지 초기 할부금을 면제(Minimum down payment 0%). ② 3월부터 연말까지 주택구입 자금을 위한 LTV 최대 100%까지 허용. ③ 개인과 기업들에게 은행권 금리관련 정보 제공. ④ 생산적 부문과 관광 부문에 대해서 현지 통화 결제의 제공. ⑤ 국산 물품 장려 등을 위해 전자결제 강화 등임. 아울러, 금리 정책 뿐만 아니라 대출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여서 코로나19 회복을 위한 경제 주체들의 필요 자금 지원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함

➢ 1월 인도네시아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대비 1.55% 상승하여 물가 정상화 흐름이 다시 둔화되었고 근원 물가지수도 전년대비 1.56% 상승하여 전월보다 둔화되었음. 1월에도 각 지역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되면서 수요가 둔화된 영향에 따른 것으로 연초 각국에서 유가 및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인해 물가 상승률이 높아졌던 것과는 상반되는 모습이었음. 그럼에도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2021년에는 물가가 정상적으로 관리 범위 이내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수요 증진을 위해 금리 인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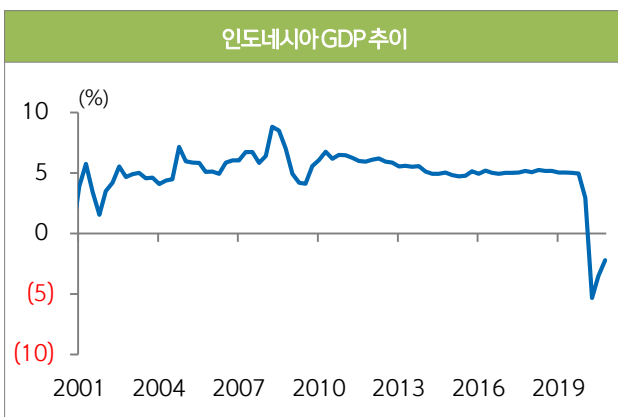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2021년 인도네시아 성장률 전망을 기존의 4.8~5.8%에서 4.3~5.3% 범위로 낮추었는데 음. 2020년의 부진한 성장률 영향 등을 감안한 것임. 중앙은행은 대출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를 통해 유동성 지원을 늘림으로써 인도네시아 경제가 성장 경로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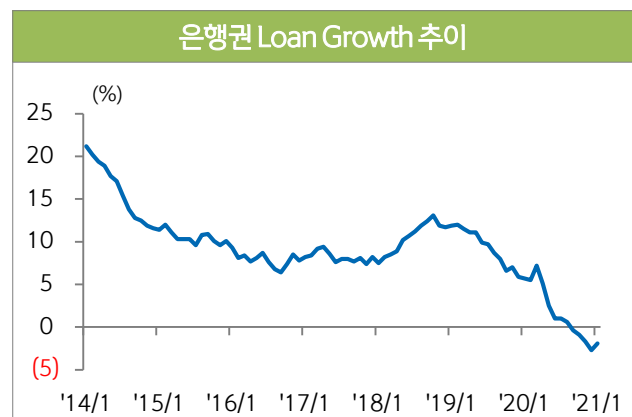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자료: Bloomberg



자료: Bloomberg



자료: Bloomberg

주요 뉴스





대통령, 인니 투자 위원회(INA)가 위한 투자자 신뢰를 높여줄 것으로 확신



❖ 요약 및 시사점

조코위 대통령은 국부펀드 운영을 위한 투자 위원회 자문단과 이사회 위원들을 지명하면서 국내외 금융산업에 대한 이해가 높고 관련 경력에 기반하여 외국인 투자자를 국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마중물이 되어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음.

- 조코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투자 위원회(INA)가 국내외 투자자들이 인도네시아 국가 개발을 가속하기 위한 신뢰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낸 바, 법적 기반과 정치적인 지원에 힘입어서 관련 위원회가 구성된 만큼 위원들은 강한 해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신뢰를 얻어낼 것이라 자신함. 이들이 국부펀드 운영에 대해 핵심적인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예상하는 한편 국가기관들에게 위원회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요청함.
- 위원회는 국내의 부족한 조달 기반과 국가 개발에 필요한 대규모 자금 수요 사이의 갭을 메꾸기 위한 목표로 구성된 바, 인프라 개발 등 국가 개발에 필요한 국내외 투자자들을 연결하는 것을 전략적인 목표로 함. 위원회의 자문단은 재무장관, 국영기업부 장관, Haryanto Sahari, Yosua Makes, Darwin Cyril Noerhadi 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이사회는 Ridha Wirakusumah를 CEO로, Arif Budiman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Stefanus Ade Hadidjaja를 CIO, Marita Alisjahbana를 CRO, Eddy Porwanto를 CFO로 지명하였음. 조코위 대통령은 이사회 멤버들을 투자, 은행, 금융산업, 위험관리 부문의 경험을 갖춘 사람들로 구성하였음.
- 조코위 대통령은 위원회가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국영 자산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투자자들을 유치함으로써 국가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가져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함
- 재무장관은 본격적으로 출범하기 전부터 인도네시아 투자 위원회(INA)나 인도네시아 투자 운영연구소(LPI)에 외국인 투자자들 및 펀드매니저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하며 위원회 이사회 멤버들이 폭넓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을 끌어낼 잠재력이 매우 높을 것이라 기대함
- 투자위원회는 2020년에 정부 예산으로 자금 15조 루피아를 할당 받았으며, 2021년에는 15조 루피아를 수혈하였음. 또한 올해 다양한 형태의 지분 투자 유치를 통해 45조 루피아를 모집하고 이를 통해 올해 말까지 개시 자본으로 75조를 가지고 투자를 유치하고 파트너십을 확장한다는 계획임

(뒷면 계속)

- 이는 투자자들을 유치하여 함께 함으로써 인도네시아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인프라 투자 사업들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것에 있어 차관이나 레버리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방법이 될 수 있는 한편 공동 투자인 만큼 더 정교한 프로세스들을 갖출것으로 기대됨
- 재무장관은 어떠한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인지는 말할 수 없지만 국부펀드와 관련한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투자 협력을 구성할 방안을 공개할 것이라고 언급함
- 위원회의 대표이사를 맡게 된 Ridha Wirakusumah씨는 투자자들에게 우호적인 투자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한편 그는 투자자들이 인도네시아가 꿈꾸는 향상된 미래의 그림을 달성하기 위한 투자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본다고 낙관하기도 함
-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인구통계학적으로 젊은 인구가 많고 사업 잠재력이 높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우호적인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감독 위원회와 정책적인 추진이 시너지를 내면서 국부펀드가 좋은 지배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전문적인 회계 기관과도 협력할 것으로 기대됨





경제계획장관, 올해 인도네시아 성장률 4.5~5.5% 전망



❖ 요약 및 시사점

경제 계획 장관은 2021년에는 사회적 거리 두기도 다소 완화하여 운영하고 2020년에 운영된 경제 회복 프로그램을 다시 대대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민간 소비, 투자 부문의 개선을 이끌어 4.5~5.5% 수준의 성장률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 인도네시아 경제가 2021년에는 민간소비, 투자, 정부지출, 수출 등이 모두 개선되면서 4.5~5.5%의 성장을 보일 것이라고 경제조정 장관은 말하였음. 이러한 전망은 세계은행 OECD, ADB, IMF 등의 해외 금융 기관 들의 평가와도 같은 방향이라고 그는 말하였음.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0년에는 695.2조 루피아를 국가 경제 회복 프로그램에 사용하였으며 이중 579.8조 루피아(83.4%)를 집행하였음. 대부분의 예산이 보건, 사회보장 및 중소기업 지원 등에 사용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연간 경제는 -2.07% 성장하였음.
- 2021년에는 688.33조 루피아를 경제 회복 프로그램에 편성하였으며, 2020년에는 조정된 대중활동 제한 프로그램(PPKM)으로 코로나19 확산 대응에 나서면서 2021년의 대대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보다는 경제 활동 재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군당국의 도움을 통해 7개 지역에서 22일까지 PPKM이 시행되었으며, 117개 병원들을 군 당국에서는 지원하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병상을 마련하였음.



중앙은행, 재정부문 지원을 위해 40.77조 루피아 상당의 정부채 매입



❖ 요약 및 시사점

중앙은행은 2020년에 이어 올해도 재정 적자 충당을 위한 국채 발행에 입찰하여서 발행시장 여건을 강화하고 정부의 유동성 필요에 대응하고 있음. 지속적인 유동성 공급에도 아직까지 인플레이션 조짐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환율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해당 정책은 연말까지 지속될 전망

- ▶ 중앙은행은 정부 재정 적자 채권 발행을 지원하기 위해 2/16까지 인도네시아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 중 40.77조 루피아 상당의 채권을 매입하였음. 총재는 이러한 발행시장의 매입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하였음. 40.77조 루피아의 채권 가운데, 18.16조 루피아의 채권은 입찰을 통해 매수하였으며, 22.61조 루피아는 Greenshoe Option(GSO)로 매수하였다고 발표하였음. 이러한 채권 매입은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사이에 2020년 4월에 맺은 조약에 따른 것이며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속됨.
- ▶ 지난 2020년에는 중앙은행은 473.42조 루피아의 발행 채권을 매수하여서 정부 재정 적자를 충당할 수 있게 해주었음. 총재는 은행과 자금 시장의 유동성이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 조치에 따라서 풍부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말하였음.
- ▶ 중앙은행은 지금까지 750.36조 루피아의 양적완화를 수행하여서 인도네시아 GDP의 4.86% 가량의 매수를 진행하였음. 726.57조 루피아는 2020년에, 23.81조 루피아는 올해 2/16까지 인수한 것임.



정부, 관광산업 회복을 위해 부양 프로그램 지속 예정



MINISTRY OF TOURISM AND CREATIVE ECONOMY
REPUBLIC OF INDONESIA

❖ 요약 및 시사점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0년 코로나19의 타격을 크게 입은 관광산업의 회복을 위해 부양 프로그램을 지속한다고 발표하였음. 대규모 관광산업 지원금과 함께 관련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전 고용 카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관광산업의 회복을 돕는다는 계획임

- 인도네시아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입은 관광 부문의 회복을 가져오기 위해서 여행 산업에 대해 지원금 지급, 저리 대출 지원, 채무재조정 및 마이크로론 등의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음. 경제 조정 장관은 관광산업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막대하다고 하면서 특별한 지원책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음.
- 관광산업을 위한 지원금은 국가 경제 회복 프로그램(PEN)에 포함되어 있으며, 지난해에는 호텔과 레스토랑 부문에 대해서 지원이 이뤄졌음.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0년에는 3.3조 루피아가 이러한 지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밝혔음.
- 경제 조정 장관은 정부가 이러한 지원을 관광 부문 노동자들에 대한 사전 고용 카드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지원하기로 하였다고 말하였음.
- 정부는 5개 핵심 관광지역을 선정하고 이곳에 대한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특별 경제 구역으로 선정한 바 있음. 이러한 전략을 통해서 국내 관광객들을 신규 개발 관광지로 유치함으로써 방문객수가 5~5.5천만에 이르게 한다는 계획임.
- 장관은 관광부문은 노동집약성이 크기 때문에 2021년 성장의 회복에 있어 중요하며, 또한 공공 안정을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말하였음.



재무장관, 인프라가 지속가능한 개발의 핵심이라고 발언



❖ 요약 및 시사점

재무장관은 인도네시아의 지속가능 성장 및 개발을 위해서 인프라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정부 재정 뿐만이 아닌 민간 투자 유치 및 협력 등도 필수적이라고 강조

- 재무장관은 적절한 인프라 개발을 통해서 인도네시아에 지속가능하고 확장가능한 개발을 이뤄낼 수 있다고 하였음. 코로나19로 부터의 회복, 기후변화, 디지털 기술로의 전환 등의 과제에 있어 중심에 인프라가 있다고 말하였음.
-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이해 관계자들이 그들의 사업 모델을 더욱 생산성이 높고 안정적인 방향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있어서 특히 ICT와 같은 연결성을 강화하는 기술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말하였음. 아직까지도 학교 병원 등 주요 핵심 기관들에도 온전하게 ICT 연결성이 제공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늘려가야 할 범위가 넓음
- 뿐만 아니라 전력, 도로, 항만, 공항 등의 사회 인프라도 인도네시아인들의 삶과 기업 투자에 있어 기반이 되어준다고 말하였음. 이러한 인프라를 구축함에 있어서 단지 정부 재정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재정의 한계를 감안할 때 민간 부문의 참여 및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하였음.



환경부, 폐기물 관리가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발언



❖ 요약 및 시사점

환경부에서는 인도네시아의 폐기물 관리 사업을 고도화시켜서 단순 매립 구조에서 화학물 생산 및 대체에너지 사용, 폐기물 수집 운송 처리 산업의 규모 확대 등으로 전환하면서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전망하였음

- 환경부는 인도네시아에서 순환경제의 강화를 통해서 폐기물 관리 및 경제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음. 이러한 이유에서 폐기물 관리 부문이 경제 성장에 주요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폐기물 자원화 원칙을 구축하고 폐기물을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하였음.
- 정부는 2021년 Garbage Awareness Day 행사에서 '팬데믹 상황 하에서의 경제적인 원 폐기물 관리' 라는 주제를 적용하고 폐기물 관리를 통해 경제활동과 연결 짓는 방안을 발표하였음.
- 폐기물 관리의 여러 단계는 폐기물 수집, 운송, 폐기물처리 및 장비 산업, 재활용 산업, 폐기물 소성 및 바이오가스 생산 및 폐기물을 대안 에너지로 삼는 산업 등 유관 산업을 창출해 줄 수 있음. 이러한 산업을 육성하여서 폐기물 관리의 새 장을 열 수 있다고 하였음.
- 인도네시아에서 폐기물 관리 산업이 실제 경제 성장에 미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는데, 폐기물 생산물의 60%는 유기물이며 Black Soldier Fly(BSF) 폐기물 처리 과정을 거쳐서 동물용 사료, 액체 비료 및 고체 비료 등을 생산해 내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예를 들었음. 이러한 BSF 폐기물 처리는 514개 지역/도시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료용 단백질 공급을 할 수 있게 되고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한다고 하였음. 정부는 이러한 사업들을 더욱 규모를 키워서 폐기물을 단순 매립하는 것에서 벗어나고자 한다고 하였음.



금융감독청, 디지털 은행에 대한 최소 자본 규정 초안 발표



❖ 요약 및 시사점

금융감독청은 디지털 은행의 설립 자본금을 10조 루피아(790억 수준)으로 계획하고 있음. 신규 법인 설립의 방법이나 전통 은행의 디지털 은행 전환 등 방안을 동시에 고려 중. 은행권 이외에도 소액 제2금융 은행에 대해 디지털화 추진 방향도 동시에 추진

- 금융감독청은 신규 디지털 은행의 설립과 관련하여 최소 자본금 요구를 10조 루피아로 하는 규정 초안을 작성하였음. 이러한 자본 규모는 디지털 은행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은행 산업을 영위할 수 있으면서 고객 데이터의 보안을 달성할 수 있을 최소 수준이라고 감독청의 은행 산업 규제 국장이 말하였음.
- 디지털 은행에 대한 관련 규정은 아직 초안의 초기 단계라고 하면서도 현재 규정 보안을 위해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서 최소 자본 규정은 변경될 수 있다고 하였음
- 디지털 은행의 설립 방식은 2가지 방식이 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첫번째는 디지털 은행을 설립하기 위한 완전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며, 두번째는 기존에 운영 중인 전통 은행을 디지털 은행으로 전환하는 방식임. 인도네시아 은행 산업은 최근 디지털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인도네시아 최대 민간은행인 BCA는 Royal 은행을 인수하여서 디지털 은행으로 바꾸는 방식을 선택하였음. PT Bank Jago Tbk와 싱가포르에 기반을 둔 Sea Group은 Bank of Economic Welfare(BKE)를 인수하여 디지털 전환 계획을 논의 중에 있음.
- OJK의 은행감독 부원장은 디지털 은행에 대한 규제가 현재 논의 중이며 초안을 조만간 확정 짓기를 희망한다고 말하였음.
- 한편, 금융감독청은 디지털 서비스로의 전환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Bank Perkreditan Rakyat(BPR, 제2금융 은행)들의 디지털 운영 방안에 대해 드라이브를 걸고 있음. 감독청은 제2금융 은행들의 디지털화 전략을 추진 중이라고 감독청의 선임 애널리스트가 해당 계획을 밝혔음. 2금융 은행(BPR)들에 대한 디지털화의 범위는 관련 정보를 한 데 모으고, 상품과 서비스를 완전히 다루며, 관련된 보고서들을 일간으로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도록 한느 방향으로 잡고 있음. 또한 감독청은 마이크로 파이낸스 기관들과 샤리아 금융기관들의 디지털화에 대해서도 방향을 잡고 있다고 말하였음.
- 이러한 2금융 은행(BPR)에 대한 디지털화는 지역 사회의 금융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교외 지역이나 시골 지역, 그리고 원격 도서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금융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임.

(뒷면 계속)

- 현재 Sabang~Merauke 지역에 걸쳐 1,669개의 2금융 은행(BPR)들이 중소 시장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506개는 전통 은행 형태, 163개는 이슬람 금융 형태로 운영 중에 있음. 이들이 커버하고 있는 자산은 전통 은행 형태의 경우 2020년 12월 기준 155조 루피아 규모(91.21%)이며, 매년 3.64%의 성장을 보이고 있음. 샤리아 은행의 경우 14.95조 루피아 규모(8.79%)를 차지하며 매년 8.67% 성장을 보이고 있음.
- 감독청은 인도네시아의 중소 규모 사업자들이 5,892만의 업체를 구성하며 전체 사업자의 98.68%를 차지하지만 여전히 현금 기반으로 결제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디지털화의 니즈가 크다고 보고 있음.

